완도군, 청산면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식 개최

2021년 군비 16억 확보 · 같은 해 12월 착공…1년 4개월 공사
연면적 494㎡ 지상 3층 건물에 2~3층 관사 10실 등 조성

완도군에서는 지난 13일 청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박성규 의원, 청산 면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신축한 직원 관사 '달팽이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준공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청산면 직원 관사 신축은 지난 2020년 2월, 완도군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간 '완도군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원-포인트 단체 협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여 이뤄낸 결실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지난 2021년 군비 16억 원을 확보하였고,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마침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축된 청산면사무소 직원 관사는 현 청산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494㎡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면장 관사와 세탁·건조실, 2~3층 직원 관사 10실 등 총 11개 실로 조성됐다.

직원 관사의 명칭을 완도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의 느림의 미학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달팽이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행사는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신우철 군수의 기념사,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의 축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과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주)에서는 도서 지역 노후 관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의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 완도군 800여 조합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조합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완도군의회 박성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 특성상 도서 지역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연고 지역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노후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석현정 위원장과 공주석 위원장은 "요즘 완도 전복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우철 군수님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약속을 지켜 주신 만큼 우리 조합에서 완도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청산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첫 결실에 이어 소안면 직원관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금당면과 생일면 신축에 이어 2024년부터는 보길면과 노화읍 등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공용차량 차고지 신축 준공

장흥군은 지난 11일 장흥읍 원도리 283-2번지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고지를 준공했다.

공용차량 차고지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 착공하여 10개월 만에 준공했다.

부지면적 1,243㎡에 건물 1동, 396㎡ 규모로 20여 대의 공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향후 연접한 군유지에 차고지를 확장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으로 군은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노후된 차고지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부지로 이전하여 청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용차량을 한곳에 집중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 준비 '막바지'

소방·가스·전기 등 관광객 안전과 주차,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진도군이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청 회의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추진상황 보고회는 20여개 협업부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준비와 교통관리, 안전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행사는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하는 개막식, 다시래기와 씻김굿, 만가 등 민속·문화예술공연, 기적의 바닷길 미디어아트 등 5개 분야 70여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진도군과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는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축제 준비단계부터 폐막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5년 연속 최우수(SA)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했다.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은 전남도내 유일한 결과로, 해남군은 민선7기 4년 연속 최우수(SA)에 이어 민선8기 들어 첫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획득하면서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5년 연속 메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결실로, 민선8기에도 군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군정 전반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4개 항목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검증을 통해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의 군정목표 아래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등 5대 방침, 15개 전략, 114개 실천과제를 확정해 추진중이다.

해남군은 공약의 취지, 실행 가능성, 재원, 법적근거 등을 검토, 분석해 군민들에게 해남발전의 장기동력을 마련하고, 백년대계의 비전을 세우는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확정했다.

또한 군민평가단을 운영해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점검 및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 누구나 공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약추진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공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운영 등 공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해남군은 민선7기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세부공약 99.1%의 높은 추진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공약이행 지자체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